

선군조선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 조금향, 림설동무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꽃다발을 받아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조금향, 림설동무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세계적으로도 초음속전투기를 타는 여성비행사들은 불과 몇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 동무들이 단독비행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이것은 결코 육체적조건과 기술적준비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최고사령관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숭고한 혁명정신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은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래어난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 나라, 특히 우리 여성들이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곁에 기뻐할것이라고, 동무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가 훌륭한 딸을 둔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이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역세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비행훈련목표를 정해주시였다.

선군조선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로 자라난 조금향, 림설동무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슬기와 담력을 안겨주시였으며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면서 당의 출격명령이 내리면 구름속천리, 불길속만리를 용감하게 헤치며 김정은결사옹위의 향로를 맨 앞장에서 날아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여성혁명가들이라고 거듭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자기 딸들이 초음속전투기를 하시면서 조금향, 림설동무들을 자기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랑하게 하자고, 항공군사령관과

